

대한상의-카이스트 '미래세대와의 AI 토크콘서트'

최태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링... 제조 경쟁력 올려야"

최 회장, 청년 창업자·연구자 소통 "근원적 경쟁력 없이는 생존 어려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링(모으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모으고 모든 솔루션을 한꺼번에 적용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조의 경쟁력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밖에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KAIST 대전 본원 KI빌딩 서남표 퓨전홀에서 진행된 '미래세대와의 인공지능(AI)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실사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고 생산 공장을 한국이 아니라 다른 데 옮긴다고 해도 백그라운드 기술이 없으면 솔직히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것도 할 수가 없다"며 근원적인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번째)이 3일 KAIST 대전 본원 KI빌딩 서남표 퓨전홀에서 진행된 '미래세대와의 AI 토크콘서트'에서 KAIST 출신 청년 A창업자 및 연구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어 "그 나라에 가도 어쨌든 AI와 제조업이 결부되니까, 경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경쟁력 없이 다른 데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시간에는 최태원 회장, 이광형 총장이 함께 KAIST 출신 청년 A I창업자 및 연구자들 간에 AI산업에

관한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 생생한 AI 산업 현장의 소리를 전하며 국내 AI 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베슬AI 안재만 대표는 "AI가 기업의 전략·기획·제품 개발 등 전 분야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수많은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통합 운영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 미래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틱 이찬 대표는 "AI는 이미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며 "만약에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에게 나를 왜 만들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적 방향으로 그 물음에 답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 창립 24주년 기념식

우리금융그룹은 창립 24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특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창립기념식은 행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했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에스오일, 화상 피해환자 치료 지원

에스오일은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화상 피해 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방주완 에스오일 CFO, 허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오일

LG, 이공계 인재육성 팔 걷어

테크콘퍼런스에 과학고 학생 초청 AI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경험 공유

LG가 석·박사 과정의 이공계 인재와 과학고 학생들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로 초청해 연구개발(R&D)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서 L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행사에는 처음으로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해 LG의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연구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LG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R&D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LG의 기술 리더 27명이 직접 강연을 펼쳤다. 강연 주제는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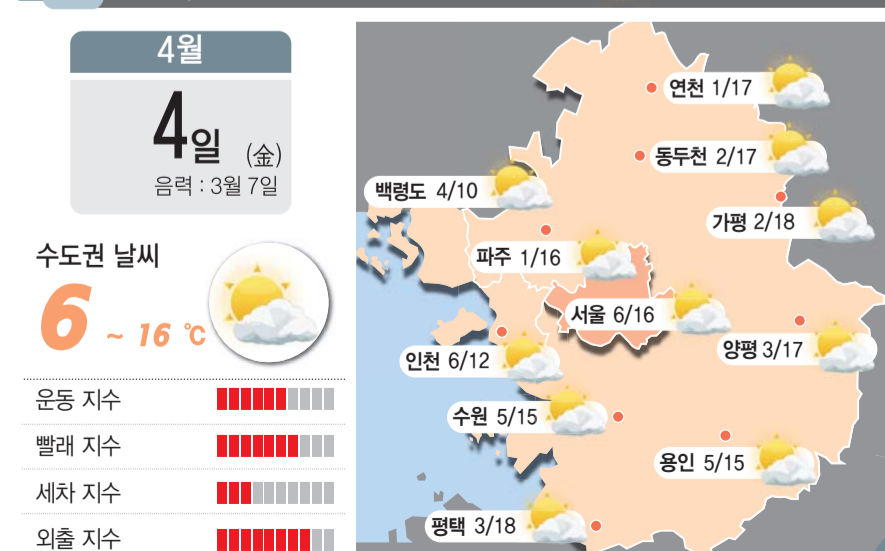
LG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해 LG의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연구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권봉석 LG그룹 부회장(뒷줄 왼쪽 두번째)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의 스마트 물류 등으로 구성됐다. 또 LG 연구진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여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공유하는 기술 교류 세션도 마련됐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 아래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오늘의 날씨



산불피해 복구

유한양행, 1.3억 상당 구호물품 지원

파스류·주방세제 등 전달

유한양행은 경상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안티푸라민 파프 및 생활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 비파워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여 개와 피해복구를 위한 해피홈 주방세제 3000여 개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 유한양행 조옥제 사장(사진)은 "이재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두산에너지빌리티, 성금 1억 기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경남지역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남도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

상남도 산청, 하동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과 생필품 지원,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JW중외제약, 1억 상당 성금·의약품 전달

JW중외제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권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성금과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 5000만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피해지역이재민의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달한 의약품은 5000만원 상당으로, 화재 후 눈 자극과 건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이재민을 위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환부를 보호하는 저자극 일회용 밴드 '하이맘밴드 센서티브' 등 구호물품이다.

/이청하 기자

LS LS러브스토리 2호 선정

LS는 최근 경북지역 산불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웃을 구하다 순직한 박현우 기장과 권영선 이장을 'LS LoveStory' 2호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2호로 선정된 두 고인은 경북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

/차현정 기자



종근당고촌재단, 청소년 문화사업 추진

종근당고촌재단은 최근 영등포문화재단과 '청소년 문화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왼쪽)과 영등포문화재단 이경환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소진공-대한상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24대 회장 상산건설 박경재 대표이사